

곤고인

곤고인은 유노쓰에 자리한 진언종의 사찰로 소박한 어촌 마을이었던 유노쓰가 이와미 은광의 주요 물자 공급원이자, 지역 일대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마을로 변모해 간 모습을 직접 목격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원의 기록에 따르면 14세기 전반에 이미 유노쓰에 곤고인의 원형이 된 사당이 세워졌고 그 안에 천수관음이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당이 있었던 정확한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찰은 17세기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서 관음상은 곤고인의 본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60년에 재건된 본당 뒤편에 있는 묘지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묘석도 볼 수 있습니다. 1561년에 모리 가문은 길고 좁은 계곡 하구에 이와미 은광으로 물자를 유통하기 위한 중요 항구인 유노쓰와 해안 요새를 만들고 은광과 연결하는 길을 놓았습니다. 곤고인에 사용된 석재 중에는 일본해 북쪽에 위치한 호쿠리쿠 지방, 현재의 후쿠이현 주변에서밖에 채취되지 않는 돌도 있는데, 이는 마을이 가장 번성했다고 여겨지는 1600년대 후반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선 시기에 이미 일본해 연안을 따라 해상 수송이 성행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돌은 묘지 입구 부근에 있는 튀어나온 돌로 둘러싸인 지장보살상 아래에서 발견되는데, 주변의 다른 돌보다 약간 짙은 색이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덕 중턱보다 높은 곳에 있는 원뿔형의 묘석은 곤고인 전 승려의 묘입니다.